조세일보

의정부세무서,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임현식씨

기사입력 2009-03-03 17:33 | 최종수정 2009-03-03 19:03 기사원문보기



의정부세무서(서장 이강태)는 3일 오전 9시 40분 의정부세무서 대강당에서 '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행사'를 가졌다.

의정부세무서는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, 모범근로자 및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에이원산업(대표이사 김성구) 외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, (주)로얄개발 이종화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서장으로, 연기자 임현식씨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했다.

이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에이원산업 김성구 대표와 화이트산업(주) 윤통한 대표가 재경부장관 표창을, 동일건설(주) 한도병원 등 4개 업체가 국세청장 표창을, 대유실업 등 6개 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. 또 의정부지역종합주류도매업 협의회 등 11개 업체는 의정부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.

의정부에 거주하는 연기자 임현식씨는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내방납세자에게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해 세정홍보대사로서 내방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.

의정부세무서는 기념식 후에는 납세홍보 영상물 상영을 통해 2008년도 국세청의 주요업무 성과내용과 '섬기는 정부, 섬기는 세정'의 2009년 세정방향을 적극 홍보했다.

조세일보 / 최종건 기자 jkchoi@joseilbo.com

조세뉴스의 리더 ©조세일보(주) www.joseilbo.com -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제090127호

표 창 장

에이원산업
대표 김 성 구

귀하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
국가재정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
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하여
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

2009년 3월 3일

기획재정부장관
윤 증 현